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8호 2015년 3월 2일(월)/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3면 입학 식사
총장

3·4면 입학 식사
경대수 국회의원, 안효원 학생회장

5면 Campus News
2015년 시무식과 함께 청양의 해 시작
세 번째 학위수여식

6면 Campus News
3년 연속 학생등록금 동결 결정
사랑의 연탄 봉사 활동

7면 Campus News
김두년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RIS 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그린캠퍼스 조성대학 사업공유 워크숍 개최

8면 Campus News
간호학과 첫 졸업생,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충북대학 최초 말산업 전문가 양성 수료식
간호학과 제 1회 학술제 개최

9면 Campus News
중국 강서중의약대와 '학생 · 연구 교류' 구체적 논의
중원대-괴산명덕초 행복씨앗학교 위해 손잡아
캠프 이상의 캠프 '중원대학교 영어캠프'

10면 Students News
총학생 회장, 부회장은 누구일까?

11면 Students News
김세나 선배님께 듣는 취업 성공비결!
청년 + 기업 행복 이음 프로젝트

12면 JWU in 人
김두년 교수 '통일을 꿈꾸다'

13면 JWU in 人
중원대 최초 경찰 공채 합격! 김강연, 손형원

14면 JWU in 人
의사를 향한 성공적인 발걸음 황윤오

15면 Freshman
성적우수 장학생!

16면 Freshman
현명한 수강신청 A to Z
The HARMONIES,
따뜻한 화음으로 겨울 추위 녹이다.

17면 Freshman
학교생활 꿀 Tip!

18면 Freshman
동아리로 대학 생활 통(通)하리

19면 Freshman
훌륭한 강의는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부터!

20면 Freshman
15학번을 위한 괴산 거리지도



優曇婆羅

삼천 년만의 신비와 축복의 기원이
중원대학교 신입생과 전 구성원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환희존자(歡喜尊者) 옷자락


간문나한(看們羅漢) 뒤쪽 천장


남루(南樓) 뒤쪽 천장


복호나한(伏虎羅漢) 옆칸 천장


소사나한(笑獅羅漢) 뒤쪽 벽면


장미나한(長眉羅漢) 옆칸 처마 서까래


간문나한(看們羅漢) 옆칸 천장


파초나한(芭蕉羅漢) 뒤쪽 천장


장미나한(長眉羅漢) 옆칸 기둥


복호나한(伏虎羅漢) 옆칸 천장


장미나한(長眉羅漢) 바깥쪽 천장


북루(北樓) 뒤쪽 벽면


소사나한(笑獅羅漢) 뒤쪽 벽면


소사나한(笑獅羅漢) 뒤쪽 벽면


남루(南樓) 뒤쪽 벽면


간문나한(看們羅漢) 옆칸 천장


남루(南樓) 뒤쪽 천장


광관루(廣觀樓) 옆쪽 담장 서까래


탐수나한(探手羅漢) 뒤쪽 천장


알이나한(挖耳羅漢) 옆쪽 천장


정좌나한(靜坐羅漢) 뒤쪽 벽면


복호나한(伏虎羅漢) 뒤쪽 벽면


장미나한(長眉羅漢) 옆칸 벽면


복호나한(伏虎羅漢) 옆칸 벽면


간문나한(看們羅漢) 뒤쪽 천장


북루(北樓) 뒤쪽 벽면


개심나한(開心羅漢) 옆쪽 낙양


미륵불(彌勒佛) 뒤쪽 돌병풍


기상나한(騎象羅漢) 옆쪽 천장


천계탑(天啓塔) 쪽 신장 옷자락

중원도장(中源道場)에 핀 우담바라(優曇婆羅)



총장 안 병 환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총장 안병환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매서운 한겨울 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샘솟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중원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중원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신입생 여러분과 20여 년간 무한한 사랑과 배려로 돌봐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중원대학교 모든 교·직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과 종단 후원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대학은 우리사회의 최상위 교육기관으로서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인성을 위해 학문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배움의 전당인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편제정원 4,500명 규모의 중견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강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매년 중원대학교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취업문제 해결은 물론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명품/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과 중국·인도 등 세계 최고 대학들과 국제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이런 중원대학교만의 경쟁력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중원대학교가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최첨단 시설을 활용해 각자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장은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막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중원대학교의 설립이념과 철학인 성실 · 경건 · 신념을 바탕으로 올곧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참된 지성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성이 바로선 전문인이야 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참된 인재상이 될 것이며, 여러분 모두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무한경쟁과 글로벌화는 현 사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기 준비와 노력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미래형 인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사회는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심리적 국경이 사라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중원대학교에서 체계화된 전공지식 습득과 다양한 경험은 여러분 인생 설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여러분들의 젊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음과 가능성을 이곳 중원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 주십시오.
젊음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젊기에 도전할 수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이를 거울삼아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회에 걸맞게 준비된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중원대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하는 우리 중원대학교의 모습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한 젊은이로 키워 우리 중원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모든 신입생 여러분께도 걱정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첫 매듭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뜻 깊은 첫 페이지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

중원대학교 총장 안 병 환



「2015년도 중원대학교 입학식」에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국회의원 **경 대 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풍초등학교 18회 졸업
- 청주중, 경동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년)
- 사법연수원 11기
- (현)제19대 국회의원(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현)새누리당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군 당협위원장

먼저, 21세기를 주도해나가는 최고 인재양성의 터,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감격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수많은 난관과 시련의 장애물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교수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동기들의 우정으로 함께 극복해간다면 혼자 노력하여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열정이 가득한 활기찬 대학생활로써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차게 미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활기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꿈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학생회장 **안 효 원**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2015년도 중원대학교 제 4대 총학생회 'Why not'의 총학생회장 신재생에너지학과 12학번 안효원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 입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가꾸어나가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율과 관성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알고, 대학교가 부여하는 여건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도전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파릇한 우리 젊은이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중원인의 진정한 자부심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교는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탐구에 매진하면서도 나누고 배려하는 노력을 가꾸어 나가야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장서되 뒤를 바라볼 수 있고, 달려가되 넘어진 자도 부축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따뜻한 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용기 있고 선택된 인재들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누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동체를 선도할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노력은 중원대학교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대학시절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긴 안목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무식과 함께 청양의 해 시작!



▶ 2015년도 시무식 후 안병환 총장(가운데)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안병환 총장이 2015년 시무식을 맞아 연설을 하고 있다.



▶ 하나 된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자는 취지로 손을 모으는 총장 및 교직원 일동.

중원대학교가 1월 5일 시무식을 갖고 2015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중원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학 C&P홀에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등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새해 업무 시작과 각오를 다지는 '2015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은 △개회식 △국민의례 △모범 교직원 표창 △총장 신년사 △폐회식 △신년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환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은 학생 1인당 장학금·학생 1인당 교육비 등 학생지원 및 교육투자 충북 1위, 환경부 주관 그린캠퍼스 선정,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다양한 분야와 지표에서 중원대학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반성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의 현 상황에 대응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명문사학으로 도약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안총장은 2015년 중원대학교 5대 발전목표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양·전공교육과정 완성과 배움과 가르침이 편한 대학, 학생만족도가 높은 대학 구축 △'항공·우주산업', '의료·보건', '신성장동력' 등 중원대학교 3대 특성화 분야 및 학과별 특성화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 확립 및 대외협력사업 강화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극복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변화하는 대학을 제시했다.

한편 대학기관평가인증 유공으로 김형수 이공대학장, 조동현 평가분석팀장을 비롯한 대학자체진단평가 연구·실무위원 30명이 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 번째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226명, 석사 5명 배출



▶ 안병환 총장이 졸업생(명영호, 경찰행정학과)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졸업생들.

중원대학교는 2월 13일 11시, 중원대 대강당에서 2015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231명(학사 226명, 석사 5명)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 교직원, 졸업생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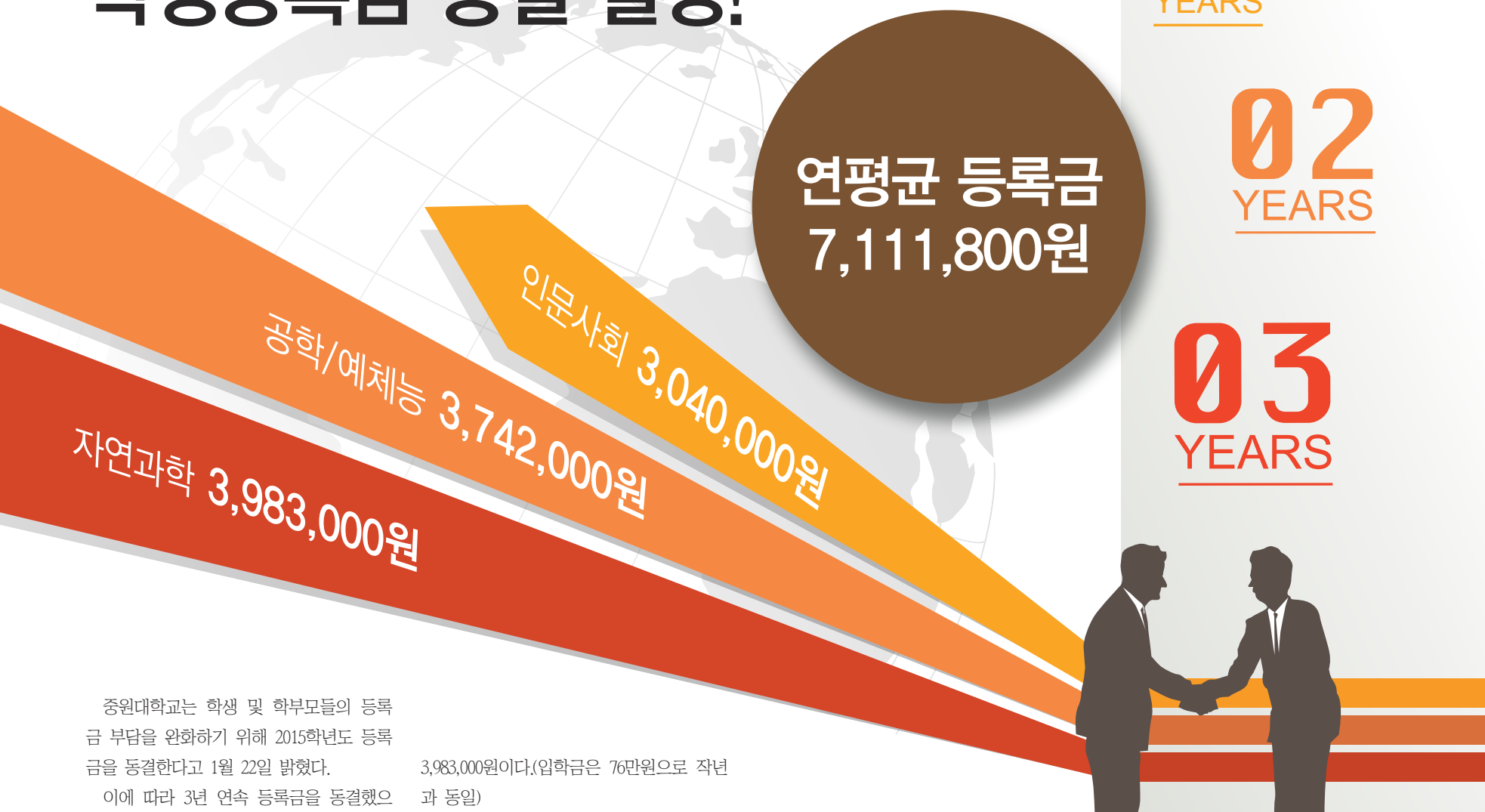
수석졸업의 영예인 이사장상은 평균평점 4.5만점에 4.45점을 기록한 문경록 군(경영학과)이 차지했으며 박원지(사회복지학과), 김소현(신재생에너지학과), 신솔희(골프과학과), 성보람(의료정보행정학과)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안병환 총장은 학위수여식 식사를 통해 "항상 성실하고 경건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이웃과 사회를 밝게 비추는 촛불과 같은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쟁취해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서 꿈을 이루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중원대학교는 개교 이후 5년 동안 명품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성과로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ADRC(Active Disturbance Rejection Control)연구센터 개소, 장학금·학생 1인당 교육비 등 학생지원 및 교육투자 충북 1위, 환경부 주관 그린캠퍼스 선정 등 다양한 분야와 지표에서 중원대학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제8호 2015년 3월 2일 월요일

3년 연속 학생등록금 동결 결정!



중원대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2015학년도 중원대학교 연간 평균등록금은 전년 대비 0.01% 인하된 7,111,8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문사회계열은 작년보다 인하된 3,040,000원, 공학과 예체능계열은 3,742,000원,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또한 동결된 3,983,000원이다.(입학금은 76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이번 등록금 인하 결정은 지난 1월 15일에 열린 중원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교직원 5명, 학부모 1명, 학생대표 1명, 외부 전문가 1명(회계사) 등 8명이 참석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들의 등록금 완화를 위해 충북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관 입사생 전원에게 4년 동안 관리비 50%를 장학혜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음과 온정이 담긴 사랑의 연탄봉사 활동!



1월 9일 오후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괴산군 사리면 일대 저소득층 5가구를 대상으로 약 1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살을 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200만원 상당의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괴산군 칠성면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봉사활동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한 뜻을 담아 진행돼 더욱 의미가 컸다. 중원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중원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연탄봉사활동에 참가한 정상봉(경영학과 4) 학생은 "지난 봉사활동에 이어 스승과 제자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봉사의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힘든 삶을 목격해 마음이 아팠지만 다행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 지역주민들을 돕고 교감을 나눌 수 있어 뿌듯했다"라고 밝혔다.

한 지역 주민은 "중원대학교 대학생들의 연탄 봉사활동이 매서운 추위를 녹이는 듯하다"며, "학생들이 방학에도 이렇게 힘써줘서 고맙고 살림에 되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명준 기자 jenkins@jwu.ac.kr

김두년 교수(법학과), 대통령 표창 수상



▶ 김두년 교수가 2014년 민간 통일교육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두년 교수(법학과)가 12. 29(월) 오후 통일부장관이 주관하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2014년 민간 통일교육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교수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남부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남북경협포럼 감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표창을 수상한 김두년 교수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후손들로부터 통일운동에 작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번 통일교육 유공 포상대상자는 총 29명으로, 국민훈장 석류장 1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6명, 통일부장관표창 1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 훈격, 주요 공적요지 등을 통일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함으로서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통일부는 1992년부터 통일교육 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우수 통일교육위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원대 RIS 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효과를 함께 만들어 냈다.

중원대학교 괴산 고부가 안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단장 중원대학교 한방식품바이오학과 김도완 교수)가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4 지역희망박람회 지역특화상품전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RIS사업단 유기농 와인사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3년째 수행중인 중원대 RIS 사업단은 조은술세종(대표 경기호)과 유기농 약주 공동 개발해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다.

유기농 약주는 괴산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원료로 사용했고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품격을 갖춘 디자인이 관람객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희망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전국 시·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가 개최하는 지역발전정책 종합박람회다.

이번 수상한 유기농 약주는 내년 괴산에서 개최 될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충북도 각종 행사에서 시음될 예정이며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대표적 명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 약주를 개발한 김도완 교수는 괴산군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원예 브랜드 대상을 받은 대학찰옥수수를 이용한 약주 특허와 수수 막걸리 특허를 획득하여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 문경 오미자 막걸리, 거제도 유자 스파클링, 의성 흑마늘 약주, 안동 식혜 막걸리 등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시킨 바 있다. 사업단장인 김교수는 "내년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내에는 유기농 혹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한 제품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면서 "괴산 및 충북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기업지원하며 유기농산업이 지역의 대표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방식품바이오학과_김도완교수

2014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대학 사업공유 워크숍 개최



▶ 그림캠퍼스 조성을 위해 참가한 9개 대학의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맨 끝 이홍찬 교수(중원대 추진사업단장).

중원대학교는 지난 12월 5일 CEO룸에서 이홍찬 그린캠퍼스 추진사업단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대학 사업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추진해 왔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그린캠퍼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홍찬 중원대 그린캠퍼스 추진사업단장, 주시후 강남대 그린캠퍼스 추진사업단장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명지대학교, 안양대학교, 국제대학교, 신한대학교를 포함해 9개 대학의 그린캠퍼스 사업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홍찬 중원대 그린캠퍼스 추진사업단장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원대학교가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중원대학교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등을 발전시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린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뜻을 밝혔다.

중원대학교는 환경부 주관 '2014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09년 개교 이래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의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2014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생기숙사는 태양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력을 자체 수급하고 있으며 캠퍼스 면적의 70%이상을 녹지로 만들어 천연잔디 골프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중원대 간호학과 첫 졸업생,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졸업과 동시,
전원 100% 취업확정 겹경사



▶ 간호학과 11학번 첫 졸업생들이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 수업 전에 이론 수업을 받고 있다.





▶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단순도뇨 실습중인 간호학과 학생들.

중원대학교가 2월 17일, 간호학과 첫 졸업생 25명 전원이 국가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표한 제55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발표에서 합격했다고 밝혔다. 2011학년도 첫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신생학과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첫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원대는 지난 4년 간 간호학과 전용 고시실 운영은 물론 기숙형대학의 장점을 살려 24시간 사제동행 프로그램인 CMP제도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시험을 꾸준히 지원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은 국가고시는 물론 전국 주요 병원에 100% 취업이 확정되어 겹경사를 맞았다.

100% 합격과 취업 소식을 전해들은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신생대학의 신생학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대성과를 이룬 간호학과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북 대학 최초 말산업 전문가 양성 수료식 개최!



▶ 김도완 평생교육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말산업 전문가 양성 수료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도완 교수)은 2015년 1월 25일 제주에서 충북권 대학 최초의 말 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말 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제주에서 입학식을 가진 후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은 주말을 이용한 집중 수업으로 이루어 졌다.

강의중심의 이론 수업은 말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강의(강원명 제주도 사무관), 유기농 말 산업과 시장전망(김도완 평생교육원장), 스포츠 산업 경영(임영삼 교수), 그 외 승용마 관리, 경주마 생산 및 목장 운영, 스포츠 매너, 힐링 승마 등으로 이루어졌다.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진행된 현장 실습은 승마 기본자세와 조마삭 훈련, 산림 외승코스 승마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실습 시 안전을 고려하여 강사의 일대일 코치가 이루어 졌으며, 일반 승마장의 더러브렛 종이 아닌 한라마로 실습을 가졌기에 더욱 안전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김도완 평생교육원장은 "충북권 대학에서는 최초로 말 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승마 인구확산과 말 산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본 대학이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2기 교육생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학과 제 1회 학술제 개최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는 12월 4일 학술제(SNL - Sexuality Need Love)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제에는 김종임 간호학과장을 비롯하여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 200여 명과 재학생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현지(간호학과 2학년)학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임(간호학과장) 교수는 축사에서 "제 1회 간호학과 학술제가 주춧돌이 되어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를 빛낼 전통적인 명물이 될 것이다"며 "학술제를 준비한 학술위원회 및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축사를 하였다.

학술제의 주제는 '성(性)'이며 이와 관련된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관계에서부터 에이즈(AIDS), 성조숙증 등 성관련 연구발표, 다문화 관련 학습연구, UCC, 공연시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였다. 일방적인 발표회가 아닌 학술제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하려는 모습을 통해 참여자의 입장에서 학술제를 구성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가 일으키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다룬 김나리(간호학과 3학년)학생은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이기에 학술제에 참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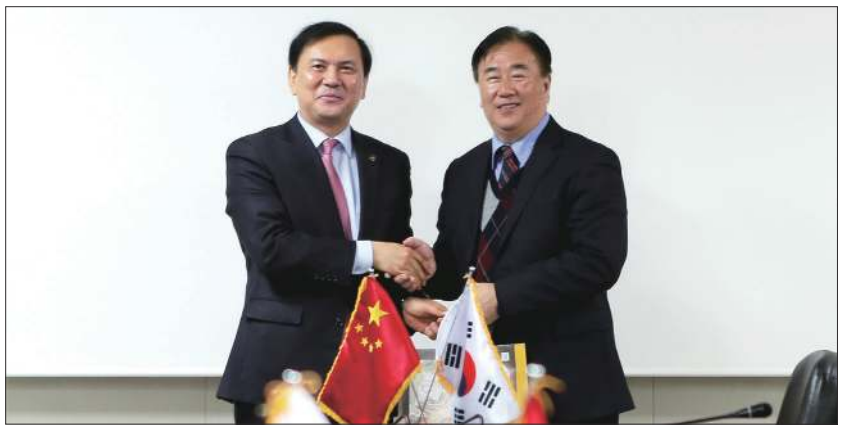
▶ 김현지 학생이 간호학과 제 1회 학술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주고 싶었다"며 "처음 준비한 학술제라 많이 떨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술제에 참여해줘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제 1회라 생각되지 않을 만큼 탄탄한 구성과 준비로 간호학과의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참여한 학생들, 발표한 학생들 모두 만족한 학술제였다.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중국 강서중의약대와 '학생 · 연구 교류' 구체적 논의



▶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사진 왼쪽)과 중국 강서중의약대 부총장 양세림(사진 오른쪽)이 국제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은 2월 14일 중국 강서중의약대 양세림 부총장의 예방을 받고 양교간의 학생과 연구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세림 부총장의 방문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주요 협력 논의는 식품공학과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학생교류 방안과 국제공동연구 MOU 체결과 양교간 연구원 교환 연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부총장은 중원대와의 교류를 통해 한방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과 중국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강서중의약대학은 중국내 연구와 산업화 분야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양세림 부총장은 중의학분야 최고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원대-괴산명덕초 행복씨앗학교 위해 손잡아



▶ 안병환 총장과 괴산명덕초증학교 이상희 교장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2월 23일 오전, 중원대 교무회의실에서 괴산명덕초등학교(교장 이상희)와 '2015 몸 튼튼 마음 튼튼 스포츠 활동을 위한 교육기부'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 중원대학교 보유 시설·인력을 활용한 전문프로그램 제공 ▲ 교육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교육기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세미나, 강연회, 학술회의 등의 공동개최 및 협력 ▲ 교육기부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을 통해 오는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중원대학교는 괴산명덕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뉴스포츠를 5~6학년 학생들에게는 골프 종목에 대한 지도자와 시설, 프로그램을 주당 1시간씩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덕초등학교의 행복씨앗학교 선정을 축하한다"고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최고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상희 명덕초 교장은 "농촌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캠프 이상의 캠프 '중원대학교 영어캠프'



▶ 2015학년도 신입생들이 영어캠프에서 수료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5학년도 신입생 영어캠프에서 영어연극의 한 장면.

2015년 신입생 영어캠프가 또다시 성공적으로 그 막을 내렸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위시한 네 가지 기본능력부터 진로상담과 fun-cafe활동, 그리고 대망의 영어연극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캠프 이상의 캠프. 중원대학교 영어캠프는 다른 캠프와 무엇이 다를까?

5일간 진행되는 풀타임(full-time) 영어회화

이번 영어 캠프 또한 전과 같이 전원 외국인교수로 구성되었다. 중원대학교 캠프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학기 중 회화나 작문 등의 수업을 통해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도가 튼 우리 외국인교수들이 직접 캠프 현장을 지휘한다는 점이다. 캠프 입사와 동시에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서 살던 20년 동안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24시간 영어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거기다 단순한 영어의 노출뿐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정수가 반영된 수업들과 영어연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은 실력과 추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낚아 챌 수 있다.

대학생활이 궁금한 사람들 다 모여라!

영어캠프의 특징은 영어공부 외에도 다른 점이 있다. 캠프 대상이 예비 중원대생인 만큼 수능을 치르고 개학인 3월까지, 대략 4개월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에 차마 궁금함을 못 참고 밤새 허벅지를 꼬집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영어캠프는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방학기간에도 학교에 남아 학업에 매중하고 있는 선배들과도 만날 수 있으며 미리 학교 캠퍼스를 구석구석 탐방 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력적이다. 학기가 시작한 직 후 강의실이 어딘지 몰라 여기저기 방황하며 쩔쩔매는 다른 신입생들과는 달리 척척 알아서 자신의 강의실을 찾아가는 모습은 나름 대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잊지 못할 대학 첫 친구들과의 추억

학창시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지칭하지만 대학생활도 나름 학창시절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수능을 목표로 매진한 재미없고 지루한 초·중·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성인인 20살부터는 예전과는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넘쳐흐른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 때 만난 친구들은 그 전의 친구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예전과는 달리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의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구에서 모인 첫 친구들은 더욱 유별난데 특히 영어캠프에서 만난 친구들이 대학 생활 내내 그 인연이 두텁다는 얘기는 지난 캠프 생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점이다. 학과 상관없이 대학생활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만난 첫 친구들과의 일주일은 발 넓은 대학생활에 성공적인 시발점이다.

이렇듯 중원대학교 영어캠프는 영어공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꼭 신입생 캠프만이 아니더라도 방학기간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주최하고 있으니 영어에 관심있는 학우들이나 넓은 인맥을 원하는 학우들 모두 신청에 주저함이 없으면 좋겠다.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제8호 2015년 3월 2일 월요일

2015 중원대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대표!

총학생회장, 부회장은 누구일까?

학교축제를 주관하는 것부터 선거관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중원대 학생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활발히 활동해나 갈 2015 총학생회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학우들의 염원이 담긴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 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임하게 된 만큼 앞으로의 각오와 큰 포부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이하 총학생회장은 '회', 총학생부회장은 '부'로 표기한다.)



▶ 황연우_총학생부회장(왼쪽), 안효원_총학생회장(오른쪽).

학우들의 권리? Why Not? 우리가 책임진다.

Q1. 먼저 2015 중원대 학생들을 대표 할 총학생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회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 중원대 학우들을 위해 발 빠르고 열정적인 대표가 되겠다고 여러분께 다짐했던, 2015 총학생회장 신재생에너지학과 12학번 안효원입니다

부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을 보필하며 2015 총학 'why not'을 이끌어 나갈 총학생부회장을 맡게 된 법학과 13학번 황연우입니다.

Q2. 총학생회장, 부회장님의 선거공약과 강당에서의 연설을 들은 중원대 학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표로 선출되셨는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선거를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다는 책임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회 1학년 때는 학생회 일원으로서, 2학년 1학기는 과대표로서, 3학년 때는 총학생회 국장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학교 내부 사정이나 학교제도의 문제점, 학생들의 불만사항 등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를 변화 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4학년인 만큼 부담이 커서 출마를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그 만큼 배우는 것 또한 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학우들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힘쓰게 되었고, 그 다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 저는 법학도로서 총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제도설립 및 규정을 제정할 때 부족하나마 이 지식이 요긴하게 이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큰 그룹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학생들의 대표 자격으로써 총학생회가 활동할 때마다 합법적인 절차나 자세 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추가 편의시설 공약!

Q3. 출마 때 내세운 대표공약이 타 학생들과는 다르게 실용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아서 긍정적 이였는데요. 그 공약내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해요.

회 우선 제가 출마 때 내세운 공약들을 크게 자판기 및 흡연부스 추가설치, 스터디 룸 개설, 택시 승강장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관장님, 학생팀장님과의 미팅을 거쳐 벌써 실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조사까지 마치고 컨설팅 과정만 남았습니다만 학교의 지원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결정이 확실히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공약만을 지키려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중원대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학생 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자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많은 설문을 할 것입니다. 그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들이 좀 더 향상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에 정당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중원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와 학우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Q4. 2015년 총학생회가 이루어 나갈 앞으로의 활약들이 기대가 됩니다. 총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큰 포부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라는 그룹이 나아가는데 저희 임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원대학생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볼 수 있는 진정한 대학교의 틀과 중원대의 전통을 앞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Q5. 마지막으로 중원대 학우들에게 한마디 or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회 중원대학교 학우여러분! 총학생회의 힘은 학생들 개개인의 힘이 모아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여 총학생회가 강해지면, 여러분의 의사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데 더 수월해집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하나하나가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와 학교 행사에 대해 소극적인 관심만 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2015년에는 총학생회의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며 학생회 또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김세나 선배님께 듣는 취업 성공비결!

高스펙, 高학력 취업준비생들이 넘쳐나는 현 취업경쟁시장에서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강점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난국 같은 취업시장 속에서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취업에 성공한 중원대 선배들과 인터뷰를 통해 취업성공의 핵심비결을 알아보자.



김세나
경찰행정학과(2015 졸업)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10학번 김세나입니다. 저는 이번 라마다 서울호텔의 하반기 채용공고에 선발되어 현재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Q2. 현재 취업한 곳은 이전부터 꿈꿔왔던 곳인가요?

A. 호텔리어는 제가 어렸을 적 부터 꿈꿔왔던 수많은 꿈들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목표로 정하고 호텔리어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성향과 자질을 재학기간 동안 오래 지켜보신 곽승엽 교수님께서 호텔직을 추천하셔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활발한 성격과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었던 호텔리어의 꿈이 교수님의 추천과 잘 부합하다고 생각했었죠. 이로 인해 오랜 준비의 시간과 고된 노력, 그리고 장장 4시간의 면접을 통해 라마다 서울호텔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Q3. 현재 라마다 호텔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처음에는 호텔 운영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소 겁은 났지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던 간에 열심히 일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프론트, 카페, 레스토랑 등을 골고루 돌아가며 업무를 경험 해보았고, 그 결과 저는 식음료부서가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 이곳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Q4. 취업준비는 몇 학년부터 어떤 활동 등을 통해 스펙을 준비해왔나요?

A. 아무래도 제 학과가 경찰행정학과인 만큼 경찰공무원시험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수험준비 기간 동안 이 길이 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미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경찰직보단 서비스업종이 저에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호텔 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이 때 부터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자격증들을 알아보며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식자격증, 조주사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업을 쉬지않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Q5.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A. 프론트에서 일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프론트는 모든 업무들이 가장 먼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특히 여러손님들을 안내하고 접대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컴플레인을 거시는 손님이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긴장이 될 정도에요(웃음). 초창기에는 겁을 많이 먹어 서툴렀던 적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잘 대처해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해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자주 쓰이는 영어회화 구문도 암기하며 임기응변에 강해지도록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융통성 있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제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Q6. 이런 취업난 속에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도중에 힘들 때는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A. 이력서를 제출하다 보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맛보게 됩니다. 이 때 저는 '칠전팔기'의 정신을 갖고 끈기 있게 문제를 헤쳐 나갔습니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강점인 다른 사람들과의 융합과 협동심을 면접 때 강조해 이 직장에 제가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점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결국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7. 취업성공에 골인할 수 있었던 팁이 있을까요?

A. 먼저 스스로에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방향이나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점부터 우선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발견된 저의 장점이 저를 면접의 문을 통과하도록 만든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중원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응원메시지 부탁드려요.

A.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을 갖지 말고 앞으로의 자기미래를 생각하며 계획부터 세워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재학 중에 제 진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점이 특히 후회가 되는데, 우리 중원대 후배님들은 일찌감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고 뜨겁습니다!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신다면 성공의 문이 그다지 멀지만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파이팅!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우수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청년+기업 행복이음 프로젝트



▶ 대학생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원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취업지원센터는 1월 13일 괴산군과 함께 '청년+기업행복이음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행복이음 프로젝트'는 중원대 학생들의 취업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참가신청한 학생들은 괴산지역 우수기업인 진미식품과 삼보A&T의 기업을 방문해 근무환경과 현장, 첨단기술을 살펴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각 기업의 채용과정, 입사성공의 면접 전략,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 취업을 위한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기업소개가 끝난 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일반상식, 뉴스, 신문 등을 통해 현대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고 중요 내용은 메모를 하면 좋다"며 "거울을 보며 자기가 쓴 글을 잘 읽어보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보라"고 학생들에게 면접 팁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회사 관계자는 "사회는 점점 치열해지고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스펙 쌓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어학성적 및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남들과 다른 나'를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의 직무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연관 지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상호(경영학과 3) 학생은 "괴산지역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류 전문 제조업체인 진미식품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기모집으로 직무별, 전문직 인력채용이 있지만 현재는 결원이 생기면 채용하는 수시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삼보A&T는 자동차 주요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성실한, 도전하는, 실천하는, 조화로운 4가지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다. 정기채용은 매년 9월에 있지만 진미식품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주로 수시모집 방식을 하고 있다. 두 기업의 채용 공고는 취업지원센터, 각 기업의 홈페이지나 괴산군청의 일자리창출센터를 통해서 채용공고를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취업지원센터와 괴산군은 '행복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중원대학교 청년층 우수인력의 생산 현장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 중소기업 홍보 및 채용관련 정보 제공으로 관내 기업 취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봉 객원기자(경영학과 4)

제8호 2015년 3월 2일 월요일

통일교육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의

김두년 교수 '통일을 꿈꾸다'



분단 70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칼바람 부는 북녘 압록강과 두만강도 이산가족의 통탄의 눈물에 차마 비정하게 얼 수 없어 그 억울한 심정을 물길에 담아 서해바다로 토해내고 있을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중원대학교 김두년 교수(법학과)가 통일교육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을 비롯한 네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두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업적과 통일에 대한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우선 수상하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수상을 하고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통일운동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기쁩니다. 후일 언젠가 통일이 되면 후손들로부터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Q.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남부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남북경협포럼 감사와 같이 네 가지나 되는 통일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통일에 대해관심이 많으시고 성공적인 통일을 원하신다고 해석이 됩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부터입니다. 그 때 얻은 감명을 계기로 한국으로 부리나케 귀국 한 후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에 중앙위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얻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통일운동을 설파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통일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나름대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특강을 하는데 힘쓰고 있고, 평소에 통일관련 단체나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작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힌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엿볼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통일이 대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동반상승하고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뿐이라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통일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떻게 되든 통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헌법 제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조급한 추진은 조급한 결과 밖에 얻지 못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다 성공적인 통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공통분모를 높여가야 하며, 서로 간에 상대방을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Q. 김정은이 오는 5월 러시아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는 핵으로 고립된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가 상황타개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은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해결방안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견해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연결이나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사업은 북한으로서도 그리고 러시아로서도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에게 동해의 항구를 개방하고 철도를 복원하는 등 관계개선을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길게 봐서 한국과의 교류 또한 엿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교관계는 국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이상만 되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반면, 19~29세의 통일 찬성률은 49%로 과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배후에는 통일을 하면 북한을 복구하는 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통일비용은 투자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로 얻어지는 이익이 이를 압도할 정도로 큽니다. 독일도 통일 직후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통일을 통해 현재 유럽의 중심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한국을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2015년 남북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향 후 통일을 위한 로드맵과 통일 이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A. 통일은 남북한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앞서 다루기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부터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같이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북한 이탈주민이 2만3천명이 넘었고, 북한에도 인터넷과 휴대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간다면 북한도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정치적, 군사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EU를 이끌어가는 중심국가가 되었을까요? 중국은 대만과 일국양제를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경제적 대국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한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에 얼마든지 진입할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과 아버님세대에는 6.25를 직접간접으로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불신도 많고 원한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만은 국민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명준 기자 jenkins@jwu.ac.kr

중원대 최초 경찰 공채 합격!

김강연, 손형원

김강연, 손형원(경찰행정 4) 학생이 중원대학교 최초로 경찰공채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기자 최소윤, 임태균 기자가 어려웠던 과정을 무사히 헤치고 중원대 최초의 경찰 공무원이 된 두 학생들의 치열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두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김강연 학생


손형원 학생

Q. 우선 중원대학교 최초 경찰공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강연 김강연(이하 강연) 저는 경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올 한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힘든 수험기간을 잘 버텨왔고 지금은 값진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저의 합격을 같이 기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손형원 손형원(이하 형원)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행정학과 1기 학생으로 2012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2013년부터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을 생각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원대 경찰행정학과에서 합격생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합격하게 되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Q. 공채시험이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합격을 위해 자신만의 노력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강연 경찰시험은 필기(50%), 체력(25%), 면접(20%), 가산점(5%)로 합산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체력시험과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필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수험생이 필기준비를 하면서 체력 시험 준비도 같이 하는데 저는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체력은 필기시험이 끝난 뒤부터 준비했습니다.(이 점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체력을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노량진에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몇 명을 모아 면접스터디를 구성하여 준비하였고, 가산점은 태권도 2단 단증(2점)과 실용글쓰기(4점)를 취득해 5점 만점인 가산점을 모두 채웠습니다.

형원 경찰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전역 후, 2012년 겨울 방학 때 무작정 노량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을 4개월 정도 듣고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집을 사서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었고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었는지 분석하면서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필기합격 후에는 체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단, 운동량, 휴식 등을 조절하여 체력시험 날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 면접에 대비하여 면접 기출문제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시사, 답변하는 방법 등을 필기합격자들 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그룹원들로 부터 피드백을 얻어 잘못된 점은 고치는 방향으로 대비하여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수험준비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수험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강연 저는 잠이 많은 편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 욕심과 공부에 대한 의욕이 앞서서 처음 몇 개월 동안에는 하루에 3-4시간 씩 자면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그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잠을 못자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시험은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뛰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다시 짜서 하루에 5-6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한 뒤에 공부하였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집중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원 저는 2014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까지 마쳤지만 최종 불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필기시험에 합격만 하면 경찰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필기시험에만 매진하였고 체력시험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필기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체력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고 결과는 최종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은 모든 과정이 준비된 사람들의 성취물이고 진정으로 합격을 원한다면 단지 필기시험이 아닌 모든 채용과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조금은 엉뚱한 질문이 되겠지만 경찰은 왜 되고 싶은지?

강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잠시 경찰이라는 꿈을 잊고 살고 있던 도중에 학과에서 중앙경찰학교를 견학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저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원 경찰이 되는 것은 저의 꿈이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행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업무에 비해 박봉이고,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첫째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둘째는 도덕성을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셋째는 우리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었기에 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Q. 이제 중원대학교를 대표하는 경찰이 되실건데, 앞으로 '나는 ○○○한 경찰이 되겠다'.

강연 저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형원 저는 친구 같은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직업이 범죄예방을 하고,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하지만 단속 활동도 많다보니 국민들이 경찰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같은 경찰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때로는 친구 같은, 때로는 옆집아저씨 같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국민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Q. 나를 키워준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에 자부심이나 홍보 부탁드립니다.

강연 먼저 경찰이 되기위한 동기부여를 해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찰현장실습을 통해 내가 왜 경찰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우치게 해 주고 힘들때 동기부여와 기회를 준 경찰행정학과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동안 선배와 후배들의 끈끈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주변의 모습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의 후배들은 주변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변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찰행정학과 1기 졸업생으로써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화이팅!

형원 저는 중원대 경찰행정학과를 감히 우리학교 메이저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경찰관들을 교육시키는 중앙경찰학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신입생들이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확고한 꿈을 마음에 품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과는 정규 수업 외에 교수님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과목 별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보충수업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안에서 우리학과 학생들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관한 정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자율방범대활동,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누리캅스활동 등 다양한 경찰관련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소윤 ·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제8호 2015년 3월 2일 월요일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JWU in 人



의사를 향한 성공적인 발걸음

황윤오 (의생명과학과, 2014 조기 졸업)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만큼 멋있는 일이 또 있을까? 여기 어려서부터 의사의 꿈을 가졌던 한 소년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꿈을 달성한 스토리가 있다. 아직도 조금의 틈만 나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그. 의생명과학과를 졸업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황윤오선배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공스토리를 알아보자.

Q.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시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을 거 같아요. 소감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2년 동안 스스로와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2013년 첫해 시험에서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후 마음을 다시잡고 재도전하여 이번 2014년도 시험에서는 다행이 MEET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2차 면접까지 잘 치루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 넘어 산이라고 앞으로도 많은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미래의 보장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원대학교 졸업생으로서 학교의 위상과 저희 의생명과학과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Q. 누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번쯤은 꿈을 가져 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의사가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기가 질릴만한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의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해외발령으로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에 동물들을 해부하는 등 직접적인 실험의 기회를 종종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때 생명의 근원과 탄생,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과 미시적인 생명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여 의생명과학과를 전공하면서 면역과 바이러스 관련 질병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기이식이나 독감질환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고 매우 보람찬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저의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고, 획득한 지식으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웃음을 가져다주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의사라고 생각해 저의 목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Q. 공부하시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선배님을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이 선배님을 괴롭힐 때 마다 어떻게 그것들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시 잡고 일어나셨는지 선배님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A. 장기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좋게 잘 푸는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책상 앞에 오래 있는 다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효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 받는 스트레스를 좋게 잘 풀고 맑은 정신력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서 스스로 터득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영화 관람과 운동입니다. 같은 수험생 동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는 보고나서도 후유증도 없이 스트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동료와 함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맑은 정신력을 위해선 맑은 육체가 뒷받침이 되어야하는데 매일 규칙적으로 한 운동이 맑은 육체의 최적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Q. 선배님의 의전원합격소식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할 후배들이 많을 거 같아요. 후배들이 선배의 흔적을 쉽게 쫓아 갈 수 있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비교적 많습니다. 일단 매년 8월에 치루는 MEET 시험 외에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학교성적, 공인영어성적, 공인한국어능력 성적, 봉사활동 및 여러 기타 활동들이 있습니다. MEET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성실하고 즐거운 학교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많은 1학년 2학년 때 영어와 한국어 능력시험들을 끝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성적을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높은 성적은 물론 MEET 시험에 필요한 바탕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됩니다. 학업 외적인 기타 스펙을 위해서는 학생회, 실험실 참여 등이 있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이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들만 활용해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외부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준비를 마친 후 졸업 이후나 4학년 말에 본격적으로 약 1년간의 MEET 시험 준비에 돌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MEET시험은 입시 학원에 등록하여 MEET만 집중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험 특성상 안타깝게도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경향성이나 문제풀이 접근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Q. 지금까지도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의전원에 들어가서부터는 더욱더 많은 시련들이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의전원을 졸업 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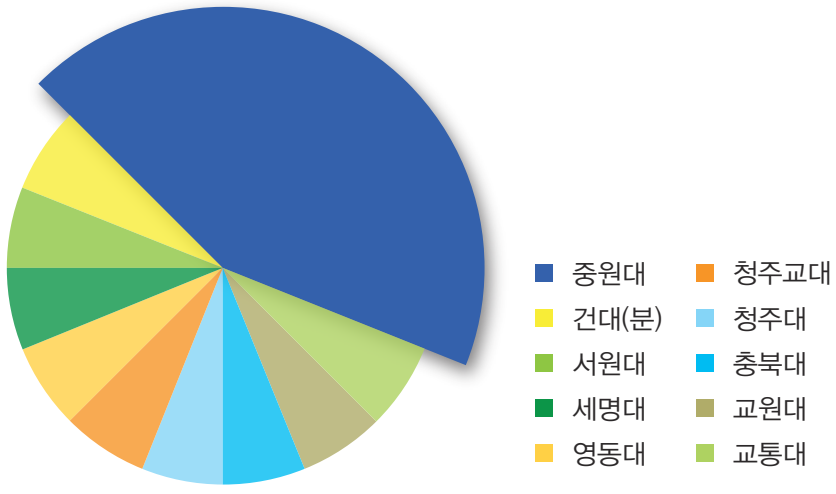
A.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기초 의학 이론수립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 외에도 중국어, 의료정책, 국내의료현황과 의료시사 교양 분야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추후 대한민국 의료관광발전에도 의사로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여러 국내외 세미나 참여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참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관심분야인 장기이식과 독감 및 호흡기 질환 분야의 세미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의학인 들과 소통하고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쌓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익숙하고 특별히 관심이 큰 동남아 낙후된 지역의 의료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제 3세계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의 지식을 통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다른 후배들에게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감사합니다.

A. 사람들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방식이 낫다고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좋은 성과는 거두었지만 저 역시 제 스스로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도 남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했다고는 당당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 있게 조언 해드릴 수 있는 점은 목표설정입니다. 요즘 많은 20대 청년들의 문제가 목표부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몰라 인생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떠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신조차 가질 수 없어 중간 회의감에 빠지기 쉽고 포기가 빨라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고 필히 목표를 설정 해두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짜서 대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만의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설정되고, 그 길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면 멋진 인생 후반부를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명준 기자 jenkins@jwu.ac.kr

나를 알고 장학금을 알면 될 수 있는
성적우수 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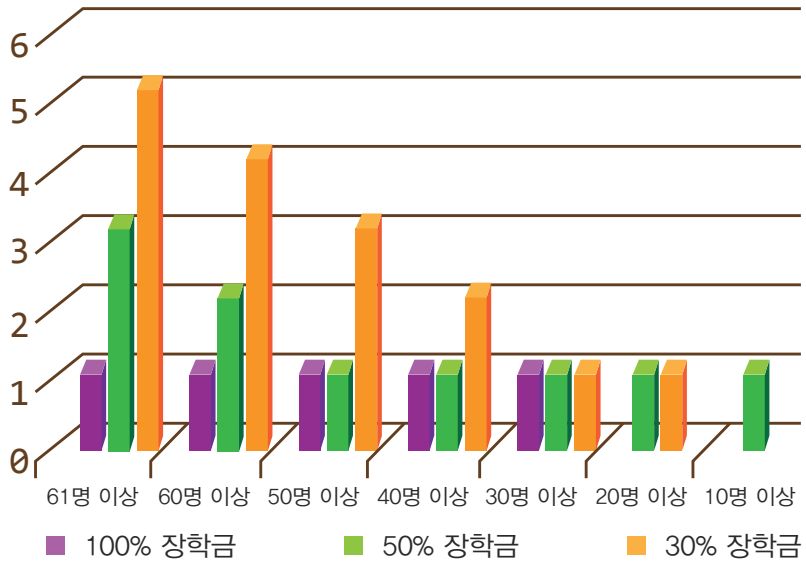
충북도내 1인당 장학금 지급률 1위 대학! 바로'중원대학교'이다. 신입생에서 재학생까지 나아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학금에 관해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소개한다.

1. 학생성적우수장학금 (I)

학생성적우수장학금(I)은 학과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이 재학인원의 상위 5%이내, 10%이내, 30%이내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 50%, 3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14학년도 2~4학년 15학년도 3~4학년 16학년도 4학년이다. 선발요건은 18학점 이상,F(과락)없이 3.5/4.5 이상 받아야 한다.

2. 학생성적우수장학금 (II)

학생성적우수장학금(II)은 학생성적우수장학금(I)이 개정된 장학금이다. 장학 혜택은 학생성적우수장학금(I)과 같은 100%, 50%, 3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성적우수장학금(I)과 다른 점은 재학생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인원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61명 이상의 학과재학생은 9명(A1, B3, C5), 60명 이하 7명(A1, B2, C4), 50명 이하 5명(A1, B1, C3), 40명 이하 4명(A1, B1, C2), 30명 이하 3명(A1, B1, C1), 20명 이하 2명(B1, C1), 10명 이하 1명(B1)이다.

대상은 대상 14학년도 1학년 15학년도 1~2학년 16학년도 1~3학년 17학년도 1~4학년이다. 선발요건은 18학점 이상 이수 F(과락)없이 3.8/4.5 이상 C장학금의 경우 3.5/4.5 이상 받아야 한다.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I , II) Q&A**

Q. "저는 2학년에 휴학을 하고 15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게 되나요?"

A. 휴학이전엔 학생성적우수장학금(I)의 대상이었지만 15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하기에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II)의 대상이므로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II)를 받게됩니다.

성적장학금 외에 세계화 장학금, 근로장학금, 중원리더장학금과 같은 다른 장학금에 대해 알고 싶다면 www.jwu.ac.kr에 접속하여 상단의 '대학생활' 란의 '장학안내' 에서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생처(S201-☏043-830-8105)로 문의할 수 있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새로 생긴 카카오스토리에서 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JungwonStory

KakaoStory https://story.kakao.com/jungwonuniv

www.facebook.com/Jungwonuniv

http://blog.naver.com/jw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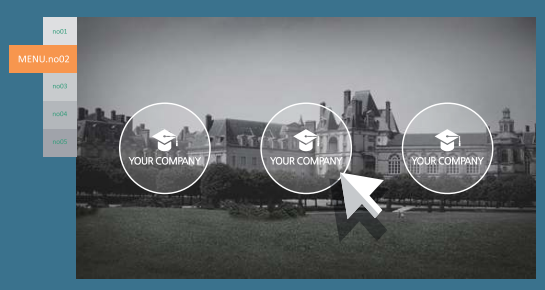
https://www.flickr.com/photos/jungwonuniversity

https://twitter.com/Jungwonuniv



안송미 기자 thdalland@naver.com

현명한 수강신청 A to Z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 됐다. 올 해는 꼭 벚꽃 엔딩을 이뤄야지, 올 해는 나의 젊음을 프로필 사진으로 남길 테야, 올 해는 꼭 토익을 900점 넘겠어와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새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위의 목표들보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수강신청이다. 소리 없는 클릭 전쟁이라는 대학생 수강신청. 그 속에서 찬란한 승리를 거두는 법을 알아보자.

1. 수강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신청 전에 알아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이 뭘 들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학에는 각 입학년도별로 졸업학점 이수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2011학년도 학번인 본 기자는 교양 30점(교양필수 24점, 교양선택 6점), 전공 69점(전공필수 9점, 전공선택 60점)으로 졸업학점 총 140점 중 99점을 반드시 위의 기준대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남은 41점은 교양과목(최대 50점까지 이수 가능)이나 전공 아니면 타과 전공을 들어서 채울 수 있으므로 매 학기마다 자신의 남은 학점을 잘 계산해 배분해야 한다. 각 학번별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학교 홈페이지의 대학생활 게시판 내 학사안내 → 졸업 → 입학년도별 졸업학점 이수기준 카테고리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학년들은 학과별 졸업요건도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2.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수강신청 전에 미리 가상시간표를 만들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밥 꼭꼭 씹어 먹어라 만큼 진부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하다. 수강신청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소리는 없어도 엄연한 전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예외가 생기기 부지기수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PLAN B를 세우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PLAN D까지는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최선부터 차선, 차차선까지 모든 대안을 세워놓자.

3. 아는 것이 힘이다.

수업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유형의 수업이 있고, 점수를 나름 후하게 주는 수업, 정말 원 없이 공부 한번 해볼 수 있는 수업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수업이 존재한다. 수업의 개수는 수백 가지인데 이 중 어떻게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을 수 있을까? 학교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다. 선배, 후배, 친구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 각 수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자.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수업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자유롭게 청강이 가능하며, 수업을 신청했다 취소 할 수 있으니 수업을 한번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그 외 TIP

교육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는 수많은 학과가 존재한다. 대학은 자신의 전공뿐만이 아니라 타 과의 전공 또한 수강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보다 넓은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 타 과 전공도 학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1학년이라면 타 과 수업도 1학년 것만 들을 수 있다. 본인이 4학년이라면 1학년부터 4학년 수업을 전부 들을 수 있으므로 수업을 잘 파악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하자.

정명준기자 jenkins@jwu.ac.kr

The HARMONIES, 따뜻한 화음으로 겨울 추위 녹이다.



▶ 12월 2일 중원대 소극장에서 외국인 교수와 교환 학생이 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10일 중원대학교 소극장에서 'The HARMONIES' 공연이 열렸다. 'The HARMONIES'는 Jennifer McGhee 교수의 지도하에 재학생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모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 캐롤을 부른 공연 팀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The HARMONIES'는 팀원들이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였다는 생각이 들 겨를 없이 이름 그대로 최고의 앙상블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은 'The HARMONIES'의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온 중원대 원어민 교수와 가족, 재학생들 50여 명의 관객으로 공연장이 금세 꽉 차며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 시작 전 가벼운 긴장감이 소극장을 맴도는 듯 보였지만, 첫 곡으로 선보인 'White Christmas' 캐롤이 시작됨과 동시에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아 이내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갈채로 이어졌다. 특히 '작별'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Auld Lang Syne' 노래를 한국어로 공연 팀과 공연을 듣는 관객들 모두 다같이 따라부르면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Jennifer 교수는 "음악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하나로 만들어 주어 행복하게 만든다" 며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교환학생들에게 중원대학교에서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많은 경험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임태균 기자 tg0610@jwu.ac.kr

선배들끼리만 몰래 전수받았던 중원대 생활백서를 공개한다!
4년간 중원 Life에서 살아가는데 알면 '정말' 좋은

학교생활 꿀 Tip!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고등학교 때 그토록 갈망했던 대학OT를 지나, 대학에서의 첫 수업을 들으려 이리저리 바삐 돌아다니는 새내기들! 아직은 낯선 대학생활에 어리버리하게 강의실을 해매고 있진 않은가? 기숙사생활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잘 해나가야 하는지 또 빨래는 언제 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원대 무릉도원에서 오래 내공을 쌓아온 선배들이 나섰다. 15학번 새내기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선배들이 꼬깃꼬깃 숨겨든 학교생활 꿀 팁을 공개하니 필요한 정보는 꼭 메모해서 써먹도록 하자.

1 기숙사

- 기숙사를 처음 배정받아 들어가면 아직은 어색한 룸메이트와 짐 풀기, 청소 같은 많은 할 일로 쉽사리 기숙사생활에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자신이 속한 방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것' 이다. 각기 다른 생활패턴으로 살아왔던 룸메이트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1주일에 1번 있는 클린데이(청소검사)때 방청소를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룸메이트의 통화 또는 다른 방친구가 놀러오게 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작은 행동이 자칫 싸움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입소 후 1주일 전 후로 방 룸메이트와 다 같이 모여 파티를 여는 방법을 추천한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규칙과 청소역할 배분 등을 정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보다 현명하고 쾌적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야 할 기본규칙의 예시로는 방 청소구역 나누기, 몇 시까지 타 방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거나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분리수거는 누가 언제 버릴지 등이 있다.

- 학교 시험기간이 되면 저마다 다른 시험과 과제일정으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해야할 때가 많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다가 소등하는 것을 깜빡하고 12시까지 방 불을 그냥 놔두었을 경우, 자칫 벌점2점이라는 쓰라린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물론 방 불 대신 스탠드를 켜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방 룸메이트 여러 명이 모여 조별과제라도 할 세에는 작은 스탠드 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과제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는 '소등연장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매일 밤 10시까지 3층 생활관에서 소등연장신청을 하면 새벽2시까지 방 불을 켜고 공부를 해도 벌점을 받지 않는다. 신청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하루에 각 학과마다 1개의 방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생들과 신청날짜가 겹칠 경우 잘 조율하여야 한다. 너무 늦게 소등연장을 신청하면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여 잘 활용하도록 하자.

2 세탁

-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면 1주일에 1번씩은 밀린 빨래를 하게 된다. 세탁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이용요금 천 원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탁실에는 세탁기 10대, 건조기 5대 남짓이 비치되어 있는데, 한번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릴 때마다 각각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람이 몰릴 때 빨래를 하러간다면 많은 기다림을 감내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은 대개 주중에는 6~7시쯤 석식을 먹고 난 후이고, 주말에는 금요일 날 집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패턴에 의해 일요일 저녁때 가장 세탁실이 많이 붐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붐비는 러시아워를 피해 여유롭게 세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세탁실을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3 매점이용

- 다양한 과자와 음료부터 즉석식품까지 즐비 되어 있는 매점에서 무엇을 군것질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을 때, 가장 큰 난제는 '무슨 빵을 먹을까'가 아닐까 싶다. 특히 갓 구워져 나온 따끈한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강의실로 향할 때는 새삼 바쁜 대학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빵은 보통 하루 1번 학생들이 점심해결을 위해 주로 몰리는 10~12시 사이에 구워져 나오며, 물량이 부족할 시 그 때그때마다 더 구워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점을 간다면 갓 구워진 따끈한 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빵 진열대의 아래층 구석을 보면 하루 지난 빵을 50%나 세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니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나름 알찬 빵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매점 근처 중원카페테리아안의 분식매대와 햄버거매대도 매일 오전 8~10시부터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니, 이때가면 갓 만들어진 신선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4 괴산읍내 갈 때

- 주변에 딱히 놀거리가 없는 우리학교의 지형특성상 가까운 읍내를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읍내까지 도보로는 보통 15분정도가 걸리고, 콜택시를 이용하면 5배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4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무료로 읍내에서 학교를 왕복하는 학교셔틀버스를 잘 이용한다면 보다 더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침 8시30분을 첫차로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매 시각 30분마다 학교에서 읍내로 출발하며, 혜원당 약국, 시외버스터미널 등 여러 정거장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또 밤 9시30분, 10시, 10시30분에는 야간셔틀 버스도 운행하니 늦은 밤에 안전하게 귀교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자. (15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JR 괴산거리지도에 버스정거장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 단, 야간버스의 경우 '주성약국 정거장'에서만 학생들을 태우고 바로 학교로 가니, 다른 정거장에서 기다리다가 허탕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5 읍내 음식점

-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3끼를 모두 중원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늘 먹는 학식이 질릴 즈음 괴산읍내 음식점에서의 한 끼 특식은 집밥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나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전에 몇 가지 팁을 알고가면 더 좋은 서비스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번 3월 학보에 나온 'JR 괴산거리지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모임에서 주로 가는 술집부터 숨겨진 맛집까지 한 눈에 다 나와 있어 친구들과 오순도순 맛집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몇몇 음식점에서 중원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JR 괴산거리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몇몇 음식점에서 JR 마크를 보여주면 가격할인부터 음료수서비스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중원대학생 혜택도 같이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학생기자 SNS
http:// www.facebook.com/jwujr

세 번째로는 가게 사장님께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것이다. 괴산읍내는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다들 한 다리 건너 이웃들이시다. 최소 4년간은 학교에서 생활하며 괴산읍내 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텐데, 술 먹고 진상을 부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몇 없는 아까운 맛집을 다시갈 수 없다면 학생 본인한테도 꽤나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중원대 학생들은 중원대의 이미지다.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먼저 인사한다면 음식점 사장님들도 아들, 딸 같아서 밥 한 그릇 더, 맛있는 반찬 한 개라도 좀 더 챙겨주시려고 하실 것이다.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

제8호 2015년 3월 2일 월요일



동아리로 대학 생활 □□□(通)□□

설레는 발걸음으로 입학할 때부터 다짐한 '멋진 대학생활을 해보자!'라는 다짐은 지켜지고 있나요?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지친 신입생도 딱히 동아리에 관심이 없던 재학생도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생활에 한 획을 그어보면 어떨까요?

둥굴레

저희 둥굴레는 2009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괴산 내에서 자원봉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동아리 "둥굴레"입니다. "둥굴레"는 "고귀한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봉사보다는 봉사의 의미 자체에 뜻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항상 부원들을 받고 있으니,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보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모두 언제나 환영입니다^^

동아리장 전찬민 010-4632-7368

ENT

Entertainment라는 뜻처럼 즐기면서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보컬, 힙합, 댄스 세 가지는 중원대 제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공연 이외에 친목도모하면 저희 동아리를 빼 놓을 수 없죠! 학기 초에 정기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컬, 힙합, 댄스에 관심이 있거나 일가견이 있다면! 잘 놀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친구라면! 후회보다 추억으로 대학생활을 장식하고 싶다면! ENT로 오세요!!

동아리장 박준휘 010-7979-2021

A.P.P.

저희 동아리는 서로가 어플 제작방법을 함께 공부하여 어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동아리입니다. 현재 공모전 입상을 목표로 하여 스터디방식을 통해 함께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 실용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만들 곳이 없거나 만들어보고 싶거나 내가 팀의 리더가 되어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만들 줄 안다면 주저마시고 함께해요!!!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곳이니 부담 갖지 말고 찾아오세요~!

동아리장 김창범 010-5645-4784

Noblesse

Noblesse하면 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연습하고 공부한 음악을 여러분과 공연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밴드입니다. 학교내에서 비정기적인 버스킹과 함께 축제 땐 저희 동아리를 빼놓을 수 없죠! 밴드인 만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가 오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열정과 의지입니다. 악기가 있든 없든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노크는 필수!

동아리장 이규성 010-4478-1417

CLIMAX



'CLIMAX'라는 이름은 공연에서의 절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는 2011년부터 계속 활동 중입니다. 정기공연 및 버스킹, 학교 밖에서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밴드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희 밴드만큼 좋은 밴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입멤버를 뽑을 때 실력보다는 인성을 우선시 합니다. 진지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물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도 첫째는 인성입니다! 들어올 준비 되셨나요?

동아리장 장민수 010-2052-2886

혜윰



안녕하세요? 동아리 혜윰은 생각하다의 순우리말로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쳐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입니다. 초창기에는 순수 공모전만을 참가하는 동아리였으나, 점차 봉사활동을 겸하여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변화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내 축제 UCC와 사진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였으며, 괴산청소년문화의집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연계한 재능기부봉사, 학교축제부스운영, 동아리 엠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동아리 가입 부탁드립니다.

동아리장 이슬비 010-8630-7969

원빈



원빈동아리의 이름의 유래는 연기자 원빈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닌 'One Bean'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커피는 커피콩이라는 것으로 우려내어 마시는 일종의 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커피의 기본인 커피콩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이름입니다. 저희 원빈 동아리는 학교생활에 딱딱한 선후배 관계를 떠나 커피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친목을 다지고 집에서 직접 원두를 갈아 우려내고 마시는 기본적인 지식 공유와 각자가 알고 있는 커피 레시피를 공유하여 직접 만들어 마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정보를 교육하는 동아리는 아닙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좋아하시는 분, 편안한 분위기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언제든 문의 해주세요!

동아리장 최웅진 010-7225-4258

소개 된 동아리 외에 만들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동아리 등록기간 때 학생지원팀에 동아리 등록 신청서, 회원명부(15명 이상), 회칙, 활동계획서,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초에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되는 동아리 신청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멋진 대학생활의 한 획 기대하겠습니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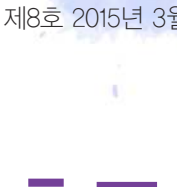
훌륭한 강의는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부터!

'좋은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존경을 품은 말투와 몸가짐으로 교수를 대한다면 'Give and Take'라 했던가! 교수 역시 그에 화답해 지루할 틈 없고 속이 꽉 찬 강의를 선사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실에선 기본적인 에티켓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에티켓을 지키고 싶지 않다'보다는 어떤 것이 에티켓인지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기본적인 에티켓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모자 착용

모자는 이른 아침 부스스한 모습을 가려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패션아이템이다.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막는 가림막이 될 수도 있다. 교수는 학생들의 눈과 표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이에 모자는 학생들의 부스스한 모습과 함께 눈과 표정 또한 가리고 교수의 원활한 강의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 강의 시간만큼은 모자를 벗고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2. 슬리퍼의 착용

슬리퍼는 편하다. 통풍도 잘 되고 무겁거나 발을 아프게 하지도 않는다. 다만, 슬리퍼는 강의를 들을 땐 지양하도록 하자. 교수가 슬리퍼에 민소매 차림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것이다.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3. 휴대폰의 사용

강의시간 울리는 알람, 벨소리, SNS알림 등 다양한 소리가 강의의 맥을 끊는다. 강의하는 교수, 함께 강의를 듣는 학우들을 위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10초만 신경써서 무음으로 맞춰두자.



4. 강의시간 준수

다들 사정은 있다. 만원 엘리베이터, 늦잠 등 강의 중 들어오는 소리에 강의 분위기는 늦게 조성되고 결과적으로 산만한 강의가 된다. 5분 일찍 도착하여 원하는 자리에서 여유롭게 강의에 임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자 대학에 온 대학생이다. 배움에 앞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춘다면 교수와 학생 모두 윈윈하는 훌륭한 강의를 만들 것이다.

임태균기자 tg0610@jwu.ac.kr



제3기 중원대학교 언론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당신의 꿈을 펼쳐 보세요.

학교행사 및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교를 사랑하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면 바로 지원해보세요.

기자 모집 일정 및 안내

- 접수기간 서류접수 : 2015.03.09.(월)~03.23(월)
  학교웹디스크 온라인접수
- 1차 합격자발표 : 2015.03.24.(화)
- 2차 면접심사 : 2015.03.26.(목) 홍보실 S402호
- 모집인원 : 5명(취재 · 영상 · 디자인)
- 기자혜택 : 언론장학금 지급(학기당 100만원)

제출서류

지도교수 추천서, 대학 성적증명서(직적학기),
언론장학생 신청서 언론장학생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지원서 업로드
(대학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중원소식-일반게시판)

- 지원서 업로드
  Web Disk (http://Webdisk.jwu.ac.kr)

대상

여러분의 알차고 멋진 대학생활과 더불어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학생
글쓰기와 사진/영상촬영에 재능있는 학생

※문의 : 034-830-8074 /홈페이지 참조
언론장학생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ujr

JR 중원대학교 언론장학생
JUNGWON UNIVERSITY REPORTERS

15학번을 위한 괴산거리지도

한 눈에 보는 괴산의 Hot place

공공시설물 고기집 편의점 음식점 술집



★JR 맛집 EVENT 쿠폰!

- 위 JR 맛집쿠폰을 사진찍어, JR마크가 달린 가게에서 중원대 학생증과 함께 보여주면, 해당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한 : 2015.3월~6월까지

괴산 만남의 광장

→괴산 만남의 광장은 여러 가지 음식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올갱이 해장국과 만남의 광장 내부에 있는 두천매운탕의 매기매운탕은 인터넷에 다수 포스팅 될 정도! 건물 뒤로는 달천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오리보트도 이용할 수 있다.

▶ 추천메뉴 : 매기매운탕 – 8,000원 / 올갱이 해장국 – 6,000원

☎ 043-834-9954

배고픔을 달래줄 맛있는 음식점

이모밥줘

→ 칼칼한 짜글이찌개에 엄마의 손맛이 담긴 밑반찬을 밥 비벼 먹고 싶을 때! 1인 밥 2공기 먹을 수밖에 없는 밥도둑! 이모한테 밥 달라고 애교부리면 밥도 반찬도 푸짐하게 주신대요~ 도전?!

▶ 추천메뉴

짜글이中(2~3人) – 20,000원

갈비탕 – 8,000원

☎ 043-833-2348

백조식당

→ 제육볶음 음식 하나만은 가히 괴산일대의 모든 제육볶음 음식점에서 최고라 일컫을 수 있는 맛집. 선배들에게 맛집추천을 받으면 꼭 한 번씩은 추천하여 중원대 학생들한테는 일찌감치 널리 입소문이 퍼진지 오래라는 전설이 있다.

▶ 추천메뉴

제육볶음 – 7,000원 (할인시 6,000원)

▶ JR맛집 이벤트

1인 1주문시 / 1인당 1,000원 할인

☎ 043-832-2541

광화루

→ 3~4명이 든든히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양과 쫄깃한 토종닭으로 얼큰하게 끓인 닭도리탕이 별미인 맛집. 진정한 푸드파이터라면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 추천메뉴

닭볶음탕(3~4人) – 30,000원

올갱이&콩나물 해장국 – 6,000원

▶ JR맛집 이벤트

1인 1주문(or 큰 찌개)시

밥 무한리필 & 1팀당 음료 1병 서비스

☎ 043-833-1270

토종순대국

→ 뚝배기의 3분의 2가 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순대국이 7천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양도 푸짐! 한 뚝배기 하실래예?

▶ 추천메뉴

순대국밥– 7,000원 (할인시 6,000원)

▶ JR맛집 이벤트

1인 1주문시 / 1인당 1,000원 할인

or 밥 무한리필 (2가지 혜택 中 택1)

☎ 043-834-3355

새로운 친구들과 친목도모를 위한 주점

비앤비, 앤츠, 쏠레

→ OT, 개강&종강파티 등 단체 술자리때는 어김없이 꼭 가는 대표 3대 주점이다. 새내기들이라면 위치 암기는 필수!

▶ 추천메뉴 : 모듬안주, 오뎅탕

☎ B&B: 043-832-6789

☎ 앤츠: 043-83 4 -0834

☎ 쏠레: 043-832-0935

별이 치킨

→ 시원하고 깔끔한 생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을때! 친구들 여럿이 치맥먹으며 수다 떨고 싶을때 강추! 특히 3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과 계란 후라이부터 음료수까지 서비스도 빵빵한 점이 포인트!

▶ 추천메뉴

후라이드 치킨–15,000원 / 생맥주

▶ JR맛집 이벤트

1팀당 음료수 1병 서비스

☎ 043-832-9070

청주본가

→ 지글지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땡길 때는? 청주본가로 고고씽! 손바닥만 한 갈비가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왕갈비탕도 인기가 많다.

▶ 추천메뉴

삼겹살 200g – 10,000원

돼지갈비 300g – 10,000원

왕갈비탕 – 9,000원

▶ JR맛집 이벤트

1팀당 음료수 1병 서비스

☎ 043-833-5666

언덕배기

→ 중원대로 올라가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나,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명한 카페! 특히 매주 금요일 8시엔 카페내 라이브공연도 한다. 음악, 맥주, 친구와 함께!

▶ 추천메뉴

커피, 병맥주

▶ JR맛집 이벤트

아메리카노 할인(4,000 → 2,500원), 다른 커피메뉴 주문시 각 500원 할인

☎ 043-833-0677

취재 : 최예린기자 choiyerin@jwu.ac.kr